

대한통운 매각 '금호터미널' 방정식'

분리매각 싸고 당사자·인수자·정치권·경제계 실태래처럼 엉켜

아시아나·포스코·CJ '분리' ... 대우건설·롯데 '일괄'

지역 정치·경제계 공익성 강조 분리 매각 강력촉구

대한통운 매각이 자회사인 금호터미널 분리매각을 놓고 매각 당사자 간, 인수 후보 간 이견을 보이며 실태를 염려해 있다.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는 터미널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3일 금융권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통운 대주주들에 이어 예비입찰 참여 기업들도 금호터미널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나타내 매각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예비입찰에 참여한 포스코와 CJ는 대한통운과 금호터미널의 분리 매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롯데는 일괄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와 CJ는 국내 최대 물류회사인 대한통운 인수를 통해 물류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이와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인수비용 부담도 덜

수 있다.

하지만 유통 중심의 사업구조를 갖춘 롯데는 물류뿐만 아니라 금호터미널 내 복합문화공간인 유스퀘어까지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인 셈이다.

금호터미널 유스퀘어에는 광주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해 CGV, 교보문고, 공연장 등 다양한 문화공간이 마련돼 있어 광주 최대 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이런 자리적 혜택 덕분에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매출 2131억원, 영업이익 527억원을 달성하며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롯데가 대한통운을 인수한다면 오는 2015년 이후 광주신세계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앞서 대한통운 매각대상 지분 37.6% 가운데 각각 18.98%와 18.62%

를 보유한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도 매각방식에 이견을 보여왔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터미널, 아시아나공항개발, 아스공항 등 대한통운 자회사 3곳을 회사자체로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 버스종합터미널은 대한통운으로부터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006년

조성된 광주버스터미널은 여객운송시설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문화와 쇼핑, 교통 기능을 갖춘 광주의 상징"이라며 "터미널이 외지 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 터미널을 폐지하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등 공익보다는 기업논리만 내세울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주체권자인 산업은행은 터미널을 대한통운으로부터 분리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spark@kwangju.co.kr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는 터미널의 공익성을 강조하며 분리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 버스종합터미널은 대한통운으로부터 분리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006년

조성된 광주버스터미널은 여객운송시설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문화와 쇼핑, 교통 기능을 갖춘 광주의 상징"이라며 "터미널이 외지 기업으로 넘어갈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 터미널을 폐지하거나 신규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등 공익보다는 기업논리만 내세울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광주시의회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주체권자인 산업은행은 터미널을 대한통운으로부터 분리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spark@kwangju.co.kr

세계적 3D 설계·디자인 업체 미국 오토데스크사 광주 온다

광주테크노파크와 MOU

세계적 3D 설계·디자인 업체 미국 오토데스크사가 광주에 온다.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유풍국)는 지난달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토데스크밸리 본사에서 미국 오토데스크 아시아 연구개발(R&D)센터와 인력양성센터의 광주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오토데스크사는 3D 기반의 제조·디자인·설계·콘텐츠제작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0만명의 제품 사용자와 185개 지역, 1900개 협력사를 갖추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오토데스크 아시아 R&D센터와 인력양성센터가 설립되면 광주의 자동차, LED, 의료기기 등 광주 전략산업 분야의 기기설계 및 디자인, 콘텐츠 역량이 강화돼 국제 경쟁력을 키워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 있다.

또 예향 광주에 맞는 녹지·공원·문화공간 등 도시공간 재구성 등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달 27



지난달 29일 미국 오토데스크밸리 본사에서 유풍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3D기술로 설계·디자인해 건축한 초고층 건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테크노파크 제공>

일 미국 글로벌 벤처기업과 ARC 오토모티브 컨설팅사 등과 광주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및 판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박정욱기자 jwspark@kwangju.co.kr

고주파 유도가열 전문기업 '세기전자'

인버터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

고주파 유도가열 전문기업 (주)

세기전자(대표 정진홍)가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했던 IGBT(고주파 유도가열 방식, 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인버터의 핵심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IGBT는 Power MOS FET의 고속 Switching 성능과 Bipolar Transistor의 고전압, 대전류 처리 능력을 함께 가진 전압제어 반도체 소자로, 저전력으로 드라이브

일 수 있다. 또 출력 및 온도제어가 용이해 안정성 및 배출가스 등의 오염 물질 발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세기전자는 "핵심부품 국산화 성공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는 물론, 난방기 등 각 사업 분야에 적용되면 기존 전기저항 발열식 기기보다 30% 이상의 전력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기전자는 지난달 19일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장성에 42억원을 투자해 IGBT 인버터를 이용한 농업용 온풍기, 축산 스팀기 및 건조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문의(062)610-5999.

/박정욱기자 jws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200.73 (-28.23)
▼ 코스닥지수
512.51 (-4.25)
▲ 금리 (국고채 3년)
3.78% (+0.01)
▲ 원·달러 환율
1068.80원 (+3.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2600억원대 '화양~적금 도로공사'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최종 확정

올해 국도사업 중 최대이로 꼽히는 2600억원대 '화양~적금 도로건설공사' 주인공이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로 최종 확정됐다.

의산국토청은 3일 총 연장 5.9km 공사금액 2612억원 규모의 '화양~적금 도로 2·3공구 터키공사' 입찰 결과, 2

공구 사업에 현대건설 컨소시엄(현

대 55%, 한화 15%, 대우 10%, 해성 5%)을, 3공구 사업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대산업개발 50%, 삼화 35%, 대선 10%, 대호 5%)을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업체로는 해송건설과 대선건설이 참여하게 됐다.

/박정욱기자 jwspark@kwangju.co.kr



3일 광주시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행락철 식품점검을 대상으로 식중독 위생 점검을 하고 있다. 북구청은 오는 20일까지 무등산 산장 및 패밀리랜드 등 주변 한 음식점에서 제품의 유통기한과 반찬류의 위생상태 점검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택지·종교용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본부장 유영일)는 3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협의양도인 택지와 종교용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

각각 112가구(14.5%)와 118가구(12.9%)가 줄어들었다.

특히 협약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

분양 물량도 광주 660가구, 전남 797

가구로 전달(772가구, 915가구)보다